



영국 연금시장 경쟁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최근 영국에서는 Solvency II 시행에 따른 장수리스크 부담이 부각되면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연금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영국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연금자유화, Solvency II 시행, 저금리 환경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세제혜택 감소, 수수료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연금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영국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영국과 같은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점증하는 연금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연금시장은 2015년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폐지 이후 연금사업을 포기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연금시장 경쟁도에 변화가 나타남
 - 2014년 7월 Reliance Mutual이 처음으로 연금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5년 Friends Life가 Aviva에 인수되면서 연금사업을 중단하였고, 2016년 Partnership 사 또한 Just Retirement 사에 인수되면서 연금사업을 포기함
 - 영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를 2015년 4월 폐지(연금자유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금수요 대폭 감소로 연금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남
 - 연금자유화 이후 94%에 달하던 연금선택 비중이 10%대로 대폭 감소함¹⁾
- 최근에는 영국에서는 Solvency II 시행에 따른 장수리스크 부담이 부각되면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연금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영국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Prudential은 2017년 2월 연금시장 철수를 발표하였고 현재 매각 상

1) 정원석(2016, 10),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대방을 물색 중이며, 2016년 Solvency II 시행 이후 연금상품 판매 부담으로 연금시장 철수를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짐²⁾

- Standard life는 2015년 신계약 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6년 10월 161억 파운드에 달하는 연금 부문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연금부문의 매각은 연금부문이 보험상품 중 가장 자본부담이 큰 부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힘³⁾
- Aegon은 2010년 신규 연금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6년 보유계약을 모두 매각하였는데, 이는 연금보유계약 매각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자 했기 때문임⁴⁾

■ 한편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타사가 매각한 연금사업을 인수하면서 비용효율화를 위한 연금사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Legal&General 사는 2016년 Aegon으로부터 30억 파운드 규모의 연금계약을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 Prudential의 연금사업에 대한 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Legal&General은 타사의 연금사업 부문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연금계약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임
- Rothery life는 2015년 Zurich UK의 연금사업 부문을 12억 파운드에 인수한 후 2016년 Aegon 연금사업의 2/3에 해당하는 60억 파운드 규모의 연금사업을 인수함
- Aviva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부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금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영국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연금자유화, Solvency II 시행, 저금리 환경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연금자유화에 따른 연금수요 감소와 함께 Solvency II 시행에 따른 연금상품의 요구자본 부담은 연금사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 또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이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여의치 않자 연금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영국 금융당국인 FCA⁵⁾는 연금사업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 8개 생명보험회사만이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연금상품과 증액연금⁶⁾ 모두를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는 4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2) Financial Times(2017. 2), Prudential to withdraw from UK annuity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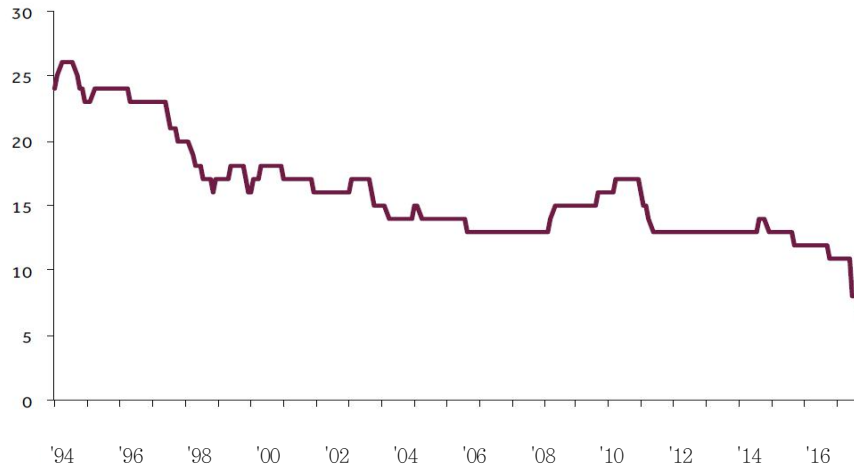
3) Reuter(2017. 6), Standard Life's Skeoch open to annuity sale, not full insurance exit

4) Aegon 보도자료(2016. 3), Aegon divests remaining part of UK annuity portfolio

5) FCA(2017. 7), Retirement Outcomes Review

6) Enhanced annuity: 유병자 등에 대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

〈그림 1〉 영국 연금사업자 수 추이(1994~2017)



자료: FCA(2017. 7), Retirement Outcomes Review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세제혜택 감소, 수수료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연금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2016년 생명보험의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혜택 감소, 수수료 제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6.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2014년 신지급여력제도에 장수리스크를 추가하는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논의 중임
 - 장수리스크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영국과 같은 연금시장의 경쟁도 약화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점증하는 연금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도 연금판매를 축소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연금상품 선택권의 제약, 연금보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연금상품은 은퇴자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만큼 생명보험회사들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